

보도시점 2024. 8. 19.(월) 09:00 배포 2024. 8. 19.(월) 08:30

중동·남미·아프리카까지 케이(K)-지식재산 교육으로 경제발전 '쑥'

- 특허청·KOICA, 6개국 대상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시행(8.19.~8.29.)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 19.(월)~8. 29.(목)까지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참가국) 요르단(3), 르완다(3), 에콰도르(3), 엘살바도르(2), 멕시코(2), 베트남(2)

본 과정은 '23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시작된 'KOICA 국제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협력하여 참여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은 참여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경제 발전 모델 ▲ 글로벌 지식재산(IP) 라이선스 전략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및 금융 등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IP) 시스템 전략 과목이 포함된다. 본 과목은 각 참여국 내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본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과정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현수막 및 개요

담당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이현동 (042-601-4350)
		담당자	사무관	조성재 (042-601-4332)



□ 개요

- (형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 위탁·운영
 - * '23~'25년까지 3개년 간 수행되는 연수과제로 올해 2차년도, 예산은 3년간 10억원
- (목적) 지식재산분야 공무원의 IP 창출·활용·보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교육 수혜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과정 주요 내용

- (과정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 * (영문명)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the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일시/장소) 2024. 8. 19.(월)~8. 29.(목) / KOICA 연수센터(경기도 성남)
- (참가규모) 총 6개국 15명
 - * 요르단(3), 르완다(3), 에콰도르(3), 엘살바도르(2), 멕시코(2), 베트남(2)
- 주요 교육내용
 -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정책 및 인식 개선
 - 한국 특허청과 참여국의 협력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확대
 - 한국과 참여국가의 IP 인프라 현황 비교 및 방향성 도출
 - IP 창출과 활용의 중요성 교육
 - 참가국 IP 현황 및 체계 공유
 - IP 가치평가, IP금융, IP 사업화 강의 진행
 - 상표 지리적 표시 및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등 안내